

가을

AUTUMN VOL.3

ISSN 2733-5429





소양,
해 지는
들녘을
걷다 ——— 조성웅

현미 잡곡밥, 청국장, 도토리묵, 마늘 고추장아찌를 곁들인 저녁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엄마와 함께 소양, 해 지는 들녘을 걸었다

가팔랐던 내 마음도 어느새 평평해졌다
엄마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벼 이삭처럼 자라는 해 지는 들녘이었다
차랑차랑 벼 이삭을 흔들며 단내 나는 바람이 불었다
고단하고 주글주글했던 엄마 삶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엄마 손은 고즈넉했으나
그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으면
문자로 요약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난 이 따뜻함에 기대어
서로 품고 스며드는 시간 속으로 가고 싶었다

CONTENTS

SPECIAL TALK

- 04 **여는 글**
건설근로자가 당당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며
- 06 **공제회가 걸어온 길**
공제회, 2019년 경영평가 1위 달성
- 10 **현장에서 찾다**
건설인들이 알려주는 협동의 지혜
- 12 **희망을 만나다**
건설노동자 시인 조성웅

HAPPY LIFE

- 16 **팀워크 Up&Down**
팀워크를 방해하는 말vs팀워크가 단단해지는 말
- 18 **배워봅시다**
김동성 건설근로자 가족의 “마스크 만들기” 체험
- 22 **건강 플러스**
환절기 건강관리법, 건강하게 가을 나기

PEOPLE STORY

- 24 **건설기능장들의 비법전수**
주인의식이 품질을 좌우한다, 최택진 기능장
- 26 **Thanks 공제회**
공제회 결혼지원금 수혜 사례
- 27 **힘을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를 나누면 우리는 좋은 친구
- 28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소개**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 32 **공제회 팀 탐방**
고객의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자산운용본부

CWMA IN&OUT

- 36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 38 **공제회 서비스 A to Z**
스마트하고 현장친화적인 전자카드제
- 42 **공제회 뉴스**
수해지역 복구 활동 동참 및 성금 1,000만 원 기부 등
- 50 **독자 마당**
- 51 **소식지를 읽고**

소식지 제호 「늘품」은 순우리말로써 ‘꿈’은 ‘공동체’, ‘늘’은 ‘계속하여 언제나’를 의미하며, 늘 건설근로자를 생각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제회와 건설근로자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발 행 일 2020년 9월 29일
(통권 제3호)
발 행 인 송인회
편 집 「늘품」편집발행위원회
발 행 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담당부서 혁신기획팀
전 화 02-519-2018
팩 스 0505-182-83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제 작 ㈜명진씨앤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소식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당당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보좌관 권병태

「늘품」 3번째 가을호 발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2011년 5월부터 올해 초반까지 10년 동안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동안에도 이런 건설근로자들의 소통지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년 전에 비록 하루 4,000원의 적은 액수지만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고용주별로 따로 주는 것이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로 일하기만 하면 A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B기업으로 옮기고, 또다시 C회사 현장에서 일해도 그 모든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합쳐서 퇴직금을 적립해 준다는 것이 놀랍고 신선한 발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현장의 제 동료들도 그렇고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접속해서 '퇴직공제금'이 얼마나 쌓였나 확인하는 것이 작은 즐거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계신 분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제회에서는 요즘도 저에게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금 안내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저를 아직도 건설근로자 식구로 생각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10년을 보낸 그 시기에 만난 인연들, 몸을 써서 일하면서 다져온 인생과 세상을 향한 생각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동료들과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접했던 건설일용직 특히 “용역” 또는 “잡부”라 불리는 분들은 복지와 자립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접으신 분들, 정규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집에는 얘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알리지 않고 일하러 온 청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가 된 후 가족과 떨어져서 현장에 오신 분들 등.

저는 건설근로자가 잘살게 되면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 튼

튼해져서 다른 영역들은 자연스럽게 잘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숙련 기술공뿐만 아니라 조공들도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서 온종일 누구보다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형틀, 철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숙련 기술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건설 기능인들의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설 현장이 보다 안전해지고, 요즘 사회의 추세에 따라 더 쾌적하고 깨끗해져 청년들도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공제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로 함께 건설 현장을 더 좋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늘품」의 꾸준한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경영평가 1위 달성, 높은 효율과 빠른 실행으로 혁신을 가속화하다



송인회 이사장 취임 1주년 혁신 성과 보고회

1.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 경영평가 고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첫 1위(A등급) 달성



2019년 정부 경영평가 결과 공제회가 A등급을 달성했다. 2013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송인회 이사장 취임 이후, 공제회는 혁신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제회의 23년 역사를 주춧돌 삼아 보다 나은 새로운 미래를 그린 'NOW 건근공 22' 경영혁신 캐치프레이즈를 정립하였고, 올해는 2차년도 서브프레이즈로 'NOW and HERE'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유일·최고의 고객인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더욱 거듭나고자 '지금 바로 여기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고치고, 바꾸고, 개선하고, 변화시켜 높은 효율(High Efficiency)과 빠른 실행(Rapid Execution)으로 혁신을 가속화 하자'는 기치 하에 공제회는 혁신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 중에 있다.

2. 업무프로세스 혁신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더하다



공제회는 지난 한 해 대내환경 및 정부정책 분석을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발굴·개선하는데 힘을 모았다. 전자카드 정보연계 확대를 통해 All-In-One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직종별 기능등급 산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과 복지지원 사업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서비스(<https://1122.cwma.or.kr>)」 이용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주가 이용하는 퇴직공제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퇴직공제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15분 → 5분)하고, 실시간 신고·조회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위원회, 시민참여혁신단, 국정과제 실천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경영혁신 실행과제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여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혁신 내재화와 적극행정 확산을 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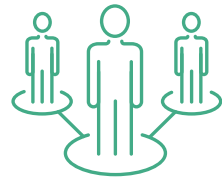


혁신경진대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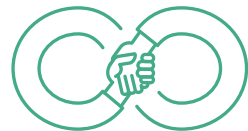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3. 유일·최고 고객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신사업 발굴에 힘을 쏟다



4.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다



청년 근로자 초청 간담회 실시

공제회는 '성장하는 퇴직공제', '제감하는 고용복지', '안정적인 자산운용', '미래혁신 선도경영' 등 4대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건설 현장의 고령화로 숙련인력이 감소하고, 신규인력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청년층의 건설 현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제대에 정인 군인에게 맞춤형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초급관리자로 양성하는 '청년 베테랑 훈련'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참여수요가 많은 직종(타일)을 우선으로 건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훈련 강사가 부대를 방문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군인이 제대하면 건설 현장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초청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하나은행과 협업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규 상품을 개시하였다.

지난해 11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전자카드·건설기능인등록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과 11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정 시행된다.



청년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 한 단계 도약·발전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연계하여 고지 도달률을 높이고,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새로이 청구할 수 있게 된 88만 명에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고지를 의무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대외기관 요구를 바탕으로 분산된 시스템(3개)을 통합하여 원스톱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또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업의 수혜인원을 전년도 대비 7.8% 확대하고, 건강검진과 단체보험 등 주요 복지사업의 지원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공제회가 한 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제회가 명실공히 부(部)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높은 효율과 빠른 실행으로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할 것이다.



임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실시

건설인들이 알려주는 협동의 지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협력하면 훨씬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말이지만, 생활 속에서 협동을 실천하기란 ‘나 혼자’만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협동은 말 그대로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협동은 안전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그만큼 협동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현장의 지혜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팀원들을 이끌며 협동의 지혜를 발휘한 기능공 세 명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협동이란, 각자의 생각은 접어두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이 늦어질지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죠. 이 때 필요한 게 바로 ‘협동’입니다. 어떤 일터든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이고, 각자가 가진 기술을 함께 발휘해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각자가 가진 기술을 앞세워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면 작업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아침과 점심, 하루 두 번 진행되는 TBM(Tool Box Meeting) 시간을 이용해 크게 27지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동료 간 다툼이 없을 것, 둘째가 현장 정리정돈입니다. 두 가지 모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비계 작업 특성상,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보니 효율적인 작업을 전개하고, 개개인을 원활히 통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소 강하게 지시하는 편인데, 일할 때만큼은 부드럽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팀을 이끄는 입장에

서 작업할 때는 ‘제집을 가족과 함께 짓는다’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할 때 하나라도 더 도와주게 되고, 위험 요소를 서로서로 체크하고, 보완하다 보면 ‘함께,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종민 (주)제이콘, 비계공

“협동이란, 상대 작업자를 배려하며 술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중·후 TBM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 방법과 안전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공유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곧 ‘협동’인 것이죠. 작업자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이 따를 수 있을까요? 결국은 팀워크가 좋아야 협동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율하는 협력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계 작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충분히 소통해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을 잘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비계 작업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진행되므로 밑에서 자재를 공급받는데 주변 환경도 시끄럽고, 거리가 멀다 보니 말보다는 수신호를 사용합니다. 그런 만큼 눈빛과 손짓만 보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맞아야 하죠. 그래서 비계 작업은 대부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매번 원하는 작업자들끼리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동료애도 생기고, 협동도 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김현철 (주)제이콘, 비계공

“협동이란, 자신의 초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 자체가 워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한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한마음일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요령을 피우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협동의 개념이 무색해지기 마련이죠. 몸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 등 여러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참기 어렵습니다. 작업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지고요. 위험하고 힘든 일인 만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의 전제 조건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적인 인성을 먼저 갖출 때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아래가 분명한 조직인 만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업무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죠.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그날 작업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 저의 초심을 떠올립니다. 기능공이 되기까지 건설 현장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오며 겪었던 당시를 생각하며 아랫사람을 대하고, 또 위사람은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합니다. ‘나도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위치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면 협동은 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솔직히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녔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함께 일하기 힘들어요. 기공이든, 조공이든 결국 협동이란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범 (주)제이콘, 비계공

중심과 경계 사이 그 어디쯤

건설노동자 시인 조성웅

붓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시인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변방의 아들은 그렇게 야생의 엄마와 살기 위해 중심을
 갖지 않는 바람이 되었다. 강원도 화천의 한옥에서,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 몸담으며 쌓아 올린 자신의
 경험과 체득을 시로 녹여낸 조성웅 시인을 만났다.

절망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써 내려간 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이렇게 정의했다.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근엄하며 더 중요한 무엇이다. 역사가 말하는 것은 독특한 사건들이지만 시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는 보편적인 정서를 관통하며 민중의 삶과 궤를 함께 해왔다. 오랜 침묵을 깨고 네 번째 시집 〈중심은 비어 있었다〉로 우리를 찾아온 조성웅 시인은 중심과 변방 사이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온 건설노동자들과 궤를 함께 해온 시인이다. “저를 노동하면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를 썼어요. 하지만 그런 연대기적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글



쓰는 노동자나 노동하는 글쟁이나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깐요.”

시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로부터 소개받은 천상병, 이희수, 중광 스님의 책을 읽으며 세 사람에게 폭 빠졌다. 세 사람 사이에 교집합인 '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시 쓰기를 꿈꿨다. 골방과 서점 사이를 오가던 시인은 서울에대 문예창작과 재학시절 용돈을 벌 생각에 건설 현장으로 갔다. 무심코 뛰어든 건설 현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천만의 장소였다. 올림ピック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일주일이면 수 개의 마천루가 새로 생겨났다. 신화 앞에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였다. “누구도 노동자인 우리에게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고 있는 건물이 언제 쫌 완공될 것인지를 물었지요.”

그는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운명이었다. 낮이면 현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골방에 틀어박혀 시를 썼다. 어둠에 묻힌 것들을 끄집어내 고발하고, 눈 한번 깜빡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려 애썼다. 밤과 바꾼 기록의 시간들은 2001년 첫 번째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를 잉태했고 그렇게 그는 '노동자 시인'이 되었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에

시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시인

울산 현대중공업에 들어가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해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하며 희망을 품고자 했던 시인은 2006년



“텃밭의 어린

존재들에게서

이윤보다 풍요롭고

경쟁보다 무성한

뿌리를 키우는

희망, 사랑이

오를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의 힘을

발견한 거지요.”

두 번째 시집 〈물으면서 전진한다〉를 펴냈다. 희망의 집을 짓고자 했던 치열했던 30대 초 중반의 담과 삶의 기록을 남긴 것이다. “비록 이 기지는 못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현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이 보내준 신뢰의 눈빛, 따뜻한 함성들이 결국 희망의 몸짓을 만들어 갈 거라 믿었으니까요.” 단절과 계승의 경계 위에서 탄생한 두 번째 시집은 수출 달성과 성공 신화 속에서, 주체이면서 변방의 객체로 소외된 거대한 공장 속의 ‘사람’, 즉 노동자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시집이었다.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인 ‘해방글터’ 동인,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했던 시인은 2013년 세 번째 시집 〈식물성 투쟁의지〉를 펴냈다.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의 85크레인 100일 고공 투쟁을 지켜보며 그녀가 크레인 위에 가꾼 텃밭에 주목하며 쓴 글이다. “텃밭의 어린 종재들에게서 이윤보다 풍요롭고 경쟁보다 무성한 뿌리를 키우는 희망, 사랑이 오를 수 있는 거대한 씨앗의 힘을 발견한 거지요.” 독자들이 자신의 시와 함께 시대의 전망이 되길 바랬던 시인은 그렇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그리운 얼굴들을 위한 시집 〈중심은 비어 있었다〉

망가진 몸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강원도 화천으로 온 그는 오랜 침묵을 깨고 얼마 전 네 번째 시집을 선보였다.

〈중심은 비어 있었다〉는 제목의 신작에는 역설적이게도 밀도를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편린들이 담겨 있다. 강원도의 푸른 힘 덕분에일까. 눈빛은 여리고 언어는 순해졌다. 스스로도 ‘아픈 엄마 곁에서 배운 긍정의 힘 때문에 곁을 내어주고 깃들며’ 살아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듯 말이다.

“이번 시집의 푸른색 표지에는 파랑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였던 엄마의 소망을 담았어요. 발간한 시집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표지입니다.” 이번 시집을 통해 시인은 2014년 칠순 잔치에 모친을 위한 시집을 발간해 선물했던 시를 수정하고 칠순 잔치 이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성찰했다. 어느덧 그리운 이름이 된 ‘엄마’에 관한 시편들은 시집 3부에 실려 있다.

“푸른색 표지는 단순히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배관사부터 용접사까지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 제가 만난, 무수히 많은 땀에 젖은 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시집의 1부에 실려 있는 시들이,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 같은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조용한 바람을 전한 그는 우리를 뒤 안의 약속터로 이끌었다. 산에서 내려온 약수를 대접에 떠서 들숨을 마시듯 천천히, 깊이들이 마시는 것이야말로 오



박영근 문학상을 수상한 조성웅 시인의 서재

“푸른색 표지는 단순히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배관사부터 용접사까지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 제가 만난, 무수히 많은 땀에 젖은 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랫동안 노동 현장에서 동료 노동자와 만나고 그들을 관찰하면서 삶의 자세와 가능성을 겸손하게 깨우쳐온 시인이자 노동자가 택할 법한 산속의 유일한 호사이자 의식으로 보였다. 바람이 불자 그가 직접 일군 약수터의 가지들이 바람결에 몸을 내맡겼다. 이발소에 한참은 가지 않은 듯 어깨를 덮기 시작한 시인의 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숲에서 초월의 삶을 사는 그의 마음속에는 지

금쯤 무엇이 들어차 있을까. 소음과 분진으로 가득한 현장, 땀 냄새,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해 웃어주는 노동자의 얼굴들, 그리고 생전에 아들의 시 듣기를 좋아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중심을 갖지 않는 바람의 세계, 자유롭게 부유하는 공기의 세상에서, 시인은 사람의 삶과 자연의 풍경을 두루 품는, 중심이 제법 묵직하게 잡힌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팀워크를 방해하는 말 vs 팀워크가 단단해지는 말

팀워크를 이루는 모든 관계는 말에서 힘을 얻고, 말 때문에 힘을 잃는다.

말 한마디에서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만사가 형통인 경우도 생긴다.

그만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조직에서 ‘말’은 팀워크를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어떤 말들이 팀워크를 좌지우지하는지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인 박장화(건축공), 김명문(전기공) 씨를 통해 들어왔다.

같은 말, 다른 표현 팀워크 Up&Down

‘말’은 말투를 포함해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로 이뤄진다. 이 모든 작용을 동시에 듣고, 보고, 느끼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다. 여기에 감정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말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만사형통의 ‘길’이 되기도 한다.

(-) 팀워크를 방해하는 말
(+) 팀워크가 단단해지는 말



Team Work

1. 누구라도 듣기 싫은 강압적인 말투

(-)

(퇴근 시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것도 마저 하고 퇴근하세요.”

(+)

“오늘까지 꼭 끝내야 내일 다른 공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더 해주면 좋겠어요.”

COMMENT 건설근로자는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업무 지시에 따른다. 이때 관리자의 업무 지시가 상당히 강압적이라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기 싫은 마음부터 들기 마련이다. 작업별 반장과 팀장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일을 시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합리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한다면 서로가 기분 좋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2. 의미도 배려도 없는 잔소리

(-)

(제시간에 끝내기 벽찬 분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품질은 좋게, 일은 빨리빨리 많이 하세요.”

(+)

“혼자 하기 벽찬 분량이니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작업하시고, 시간(또는 일손)이 더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COMMENT 같은 말도 알맹이 없이 전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의 일하는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잘하기’만을 고집하는 건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날그날 마쳐야 하는 작업 분량은 적정한지,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며, 작업자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 시도 때도 없이 무시하는 말

(-)

“생각을 좀 하고 일하세요.”
“경력도 많으면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썩붙이는 듯한 말투로)
“그파위로 할 거면 관두세요, 일할 사람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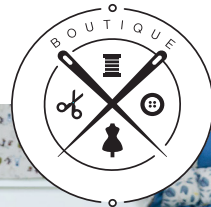
(+)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마지막까지
좀 더 분발해서 잘해봅시다!”

COMMENT 작업 관리자와 작업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에는 분명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수많은 인력을 수월하게 통솔하는方便이지만, 때론 악용되어 상대를 낮게 대우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말이 서슴없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방을 찌른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Zero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배경과 자격 그리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만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함께 두 손을 맞잡아야 한다.

다 함께 코로나19 이겨봅시다!

김동성 건설근로자 가족의
“마스크 만들기” 체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김동성 건설근로자 부부가 마스크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오랜만에 바늘을 쥔 김동성 건설근로자 부부는 바느질하는 내내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아야, 하하!” 바늘에 찔려 나오는 비명은 막더라도, 마스크를 선물할 생각에 자꾸만 새어 나오는 웃음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2019년 건설기능인의 날
대통령 표창(타일공)을 받은
김동성 씨와 아내 김명춘 씨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마스크 체험

지리한 장마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초가을 햇살이 말간 얼굴을 드러낸 오후. 동인천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문화센터 동인천지부의 문을 열고 중년의 부부가 들어왔다. 마스크 만들기 체험을 위해 모처럼 주말 나들이에 나선 김동성 건설근로자와 아내 김명춘 씨 부부다.

알록달록한 인형과 비누, 팝아트 그림 사이에서 느껴보는 설렘도 잠시,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 위로 일정한 모양으로 자른 원단 10장과 실과 가위, 그리고 바늘이 놓인다. “정말 부드럽네요. 촉감도 좋고 통기성이 좋아 숨쉬기도 좋겠어요.” 재단된 마스크 본을 만져보던 아내 김명춘 씨가 부드러운 촉감에 감탄을 쏟아낸다. “고백 하나 해도 돼요? 실은, 제가 타일공이 아니라 숙련된 바느질공 출신입니다.”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김동성 건설근로자의 때아닌 고해성사(高悔成事)가 이어진다. 실이고 옷이고 무엇이든 귀했던 시절, 그는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배운 샅바느질 솜씨로 자신의 옷을 기워 입었다. 가족들의 구멍 난 양말도 그의 일감이었다. 그러다 열일곱에 양복점에 취직했다. 나중에는 셔츠도 직접 재단해 만들 정도로 솜씨가 좋았다.

“이 중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 만드시면 돼요” 강사의 설명에 김동성 씨가 먼저 “난 다 만들어야지” 하고 의욕을 보인다. 꽃무늬, 물방울무늬, 무지 등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놓고 고민하던 아내 김명춘 씨는 장고 끝에 화사한 연두색 꽃

무늬 원단을 집어 든다. 손재주 좋은 남편과 일 처리 속도가 빠른 아내. 어느덧 부부는 둘만의 경쟁모드에 돌입해 각각 마스크의 겹감과 안감이 될 두 장의 본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래전 기억을 길어 올린 손바느질

“정작 바느질은 쉬운데 바늘귀 꿰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야.” 왼손에 바늘을, 오른손에는 실을 잡고 고군분투하던 김동성 씨가 몇 번의 허탕 끝에 간신히 바늘귀를 꿰며 노안을 땀한다. “바느질 방법을 잊어버린 건 아니고?” 한 번에 바늘귀를 꿰는 데 성공한 김명춘 씨가 슬그머니 악을 올린다. “무슨 소리야. 눈 감고도 바느질을 하는데~” 아내 쪽을 흘깃 보던 김동성 씨의 머릿속에 추억 한 조각이 떠오른다. 일 때문에 부부가 함께 제주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의 눈에 빨랫줄에 걸린 아내의 조끼가 들어왔다. 매서운 제주의 겨울바람을 막아주던 포근한 바람막이 조끼를 어찌나 자주 입었던지 끝이 전부 헤져 있었다. 김동성 씨는 아내 몰래 조끼를 가져다 갑작같이 수선해 주었다. “저는 어디서 비슷한 걸 새로 사 온 줄 알았어

요. 남편이 바느질할 줄 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런 수준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그때 받았던 감동이 새삼 다시 떠오르기라도 하듯, 김명춘 씨는 붉어진 눈가로 남편을 바라본다.

아내가 마지막 삼 분의 일을 향해 달려갈 때, 남편은 마스크 한 개를 딱딱 완성해낸다. 마스크를 꼼꼼히 뜯어보던 강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너무 잘하셔요. 바느질 간격도 일정하고 운 곳도 없고 웬만한 여자 수강생보다 나아요. 확실히 수작업 면에서는 타고난 것 같네요!” 마스크 제1호를 완성한 그는 2호 마스크로 블랙 도트무늬 원단을 고른다. “이건... 우리 한빈이 줘야지.” 김동성 씨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제자 한빈 씨를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더욱 정성을 쏟는다. “한빈이가 받으면 정말 좋아하겠다.” 김명춘 씨도 남편의 생각에 ‘굿 아이디어’라며 추켜세운다.



물리적 거리는 넓게, 심리적 거리는 가깝게

김동성 씨는 뉴마이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년 전부터 인근의 공고에서 타일 수업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



“야호!” 5초쯤 먼저 바늘을
놓은 아내 김명춘 씨가 만세를 부른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김동성 씨의
눈가에 웃음이 번진다.
“나 이긴 게 그렇게 좋아?
이긴 기념으로 겹절이나 만들어줘.
오늘 저녁엔 당신이 잘 만드는
겹절이나 실컷 먹게!”



다. 백년대계인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사명을 갖고 임하는 남편이 아내는 더 없이 자랑스럽다.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집에서도 학생들 얘기를 자주 해요.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 아이들아 꼭 어릴 적 자기 모습 같은가 봐요.”

뒤늦게 체합하고 있는 ‘학교생활’에 관해 웃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부부는 마지막 마스크 만들기에 착수한다. 5장의 샘플을 임의로 고르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3장이 똑같은 디자인이다. 이래서 부부인가 보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앉았지만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 보듯.

시작은 남편보다 늦었지만, 더 빨리 완성하고 싶은지 김명춘 씨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둘의 마지막 마스크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완성된다. “야호!” 5초쯤 먼저 바늘을 놓은 아내 김명춘 씨가 만세를 부른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김동성 씨의 눈가에 웃음이 번진다. “나 이긴 게 그렇게 좋아? 이긴 기념으로 겹절이나 만들어줘. 오늘 저녁엔 당신이 잘 만드는 겹절이나 실컷 먹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은 정성으로 마음의 거리는 한층 좁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환절기 건강관리법 건강하게 가을 나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환절기가 되면 우리 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한다. 달라진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생리적인 불안정은 신체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건강한 가을 나기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수칙을 소개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환절기 질환, 이렇게 예방하세요!

호흡기 & 알레르기성 질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며 급격히 낮아진 습도는 감기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건조해진 공기는 기관지 점막에 손상을 주고,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일상다반사로 걸리는 감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감기는 우리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를 공략한다. 따라서 감기가 자칫 폐렴이나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조해진 날씨는 여름철 번식한 해충이나 먼지가 대기에 떠다니며 알레르기성 질환(비염, 결막염, 천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집먼지진드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청소와 개인위생 관리 등 평상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대기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실내 곳곳을 개방해 환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해서 바이러스 전파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실내 습도가 낮은 경우 전파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적정 습도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체 면역력을 키워 호흡기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자.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질환이 있는 경우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 이상 나는 가을철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체온 유지가 어렵고 혈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큰 10월에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혈압은 계절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큰 일교차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기도 한데, 적절한 체온 유지와 더불어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며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얇은 겉옷을 항상 곁에 두어 체온 변화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금주·금연 등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 피부질환

가을철 피부는 유독 건조해진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피부의 신진대사 감소로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대기 중 습도가 감소하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에 수분 함유량이 적어지고 수분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이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물은 체액의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바르는 등 규칙적인 관리도 함께해주면 좋다.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생활 수칙 BEST 5

- 1. 일광욕하기** 햇빛은 비타민D를 공급해준다. 심장병, 폐 질환, 당뇨 등 각종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살균 효과도 있어 피부를 소독해준다.
- 2. 장내 유익균 늘리기**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 점막에 존재한다. 따라서 평상시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도 높아진다.
- 3. 물 자주 마시기**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가급적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기상 후와 식전 30분에 조금씩, 충분히 마시자.
- 4. 손과 입을 깨끗이 씻기** 손과 입만 깨끗이 해도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으로 침투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외출 후, 곧바로 손을 씻고 양치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5. 충분한 숙면 취하기**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체계에 혼란을 주어 몸에 무리가 오기 쉽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주인의식이 품질을 좌우한다

‘산업포장’ 포상자 최택진 기능장



‘늘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을 뜻한다. 작업을 통해, 현장을 통해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묻고 또 물어 역량과 안전, 품질을 개선한 사람이 있다. 30년 현장 경력의 최택진 기능장이다. ‘늘품’이란 말이 더 없이 잘 어울리는 주인공, 최택진 기능장을 만나 봤다.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내장공

“처음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죠.”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인천 송도 트리플 타워 건설 현장에서 만난 최택진 기능장은 ‘건설’과의 첫 인연을 그렇게 떠올렸다. 공무원시험을 치고 낙방한 후 그는 진로를 고민했다. 때마침 그의 숨씨를 잘 아는 지인이 건설 현장으로의 복귀를 권했다.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했던 건설 일이 비로소 ‘직업’

으로 다가왔다. “공부는 맞지 않고, 어차피 돌아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처음과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이상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그는 건물의 내부에 석고보드, 방화보드, 경량 패널 등 수장재를 사용해 마무리하는 내장공이 되었다. 내장공은 도면을 바탕으로 선 공종이 작업할 수 있도록 먹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공사를 함으로써 최종 마감 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종이다. “형틀이 건물의 틀을 잡아주는 공종(工種)이라면, 내장은 마감의 틀을 잡아주는 공종입니다.” ‘노가다’라 불리는 현장 일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대신,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하며 스스로 건축 내장의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했다. 도면

을 검토, 해석한 후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상의하고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의 계획서를 만들어 통합 관리했다. 현장 공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누수 없는 내장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현장이 달리 보인다

허드렛일부터 시작한 일이지만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쌓으면서 최택진 기능장은 준관리자에서 총괄 관리자로 거듭났다. 삼성건설 근무 당시 표창 2회, 2011년 삼성기능장 획득, 2018년 삼성 세이프티 챔피언 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분야에서 사공까지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경험이 기능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측의 요구를 파악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 거지요.”

예전에는 ‘열심히’에 찍힌 방점을 지금은 ‘잘’에 찍는다. “환경이 바뀌고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스스로 전문가의 자세로 맡은 일은 잘하려는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최택진 기능장. 그는 지난해 건설기능인의 날 ‘산업포장’ 부문 포상자가 되



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낸 덕분이었다. “꿈을 이룬 것 같아, 묵묵히 걸어온 길을 세상이 인정해준 것 같아 정말 기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30년을 열심히 일하니 나에게도 이런 영광의 순간이 오는구나 싶었지요.”

건설기능인들에게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스펙을 쌓아 미래를 계획할 것을 권한다. 가능한 한 많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도면을 검토하고 해석해보고 개인 공정관리 계획을 짜서 실천하는 것만큼 빠르고 단단한 길은 없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주어진 일을 하려는 수동적인 태도 대신 스스로 일을 찾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인의식은 실제 그 사람을 현장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면 보는 관점도, 생각도, 작업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겁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건설 기능인 등급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최택진 기능장. 그의 작업 계획서는 오늘도 ‘늘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결혼·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음 글은 “결혼지원금”을 받은 청년 근로자의 사연이다.

청년 근로자로 가득찬 건설 현장을 꿈꾸며

저는 부산에 거주하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지 4년 차인 건설인입니다.

지난해 4월 28일 결혼하여, 결혼 2년 차 신혼이기도
합니다. 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첫 인연은 작년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건설인은 다소 특수한 소속으로, 어느 곳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
았던 상태에서, 우연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복지서
비스”를 알게 되었고, “결혼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내
용을 보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혀 생
각지도 않았던 지원금으로, 살림살이 마련에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아니, 더
나은 혜택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에서 끝나
지 않고, ‘건설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
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합니다. 저의 또래나 젊은 사람들은 흔히
‘노가다’, ‘막노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은 물론, 복
지혜택이나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
하여 그 누구도 선뜻 다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을 인지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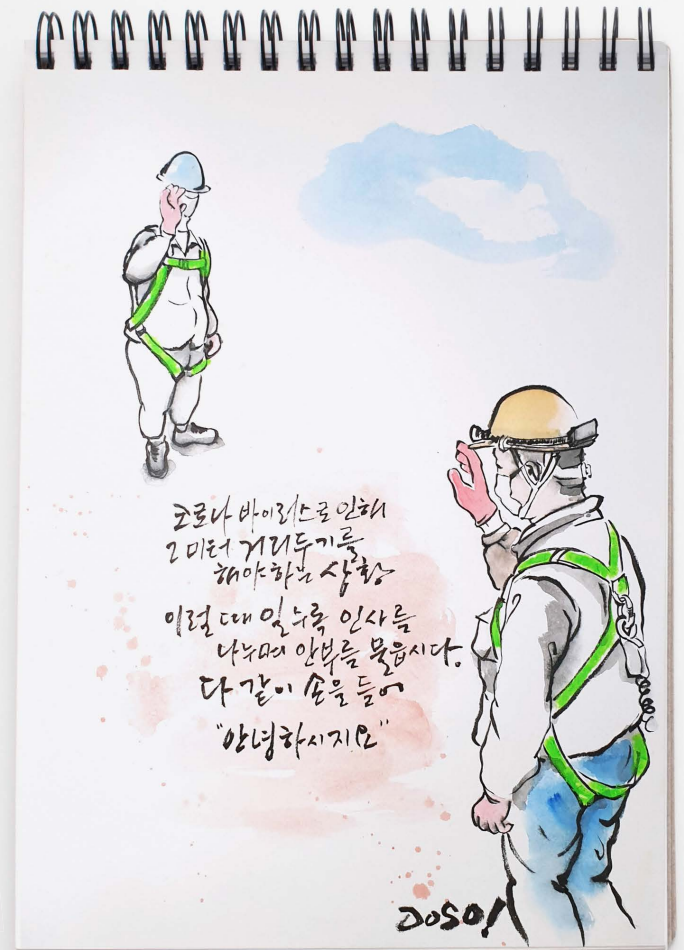
어느 회사에서 결혼지원금 50만 원을 줄까요? 저는
공제회의 훌륭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싶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과 복지 시스템을 더욱 개
선, 발전 시켜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서 벅찬 마음으
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공제
회의 이러한 노력이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고, 취업난
을 해소하며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급 직종이라고 생각
합니다. 작업복이 더러워질수록 일을 열심히 했다는
스스로의 척도로 여기며, 평생 전문 직업인으로서 나
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
루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청년들에
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전파하여 건설
현장에 젊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 주고 싶습니다. 건
설근로자로 시작하여 결혼도 하고 행복한 결혼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말하
기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라, 전문기술직이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면 우리는 좋은친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더욱 삭막해질 수 있다.
작업장에서 마주치는 타 공정 근로자에게,
혹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매의 눈으로
순회하는 안전관리자를 만나면 손을
들어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를 나누면 서로의 경계를 허물게 되고
덤으로 덕담 한마디씩 하게 된다.
그러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이 안전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그 신뢰는 인사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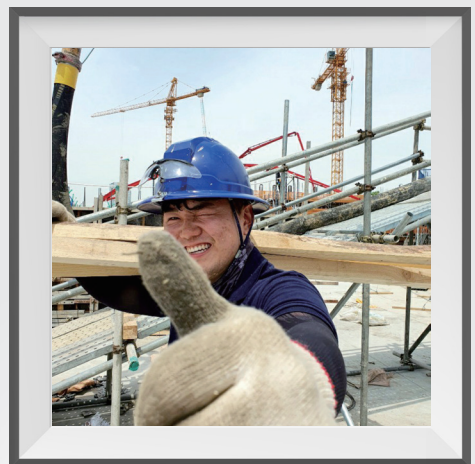


글, 그림 이두수

올해 52세로 활석팀에서 미장공으로 근무 중이다.

언젠가 활석공정으로 콘크트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 아들만 셋을 둔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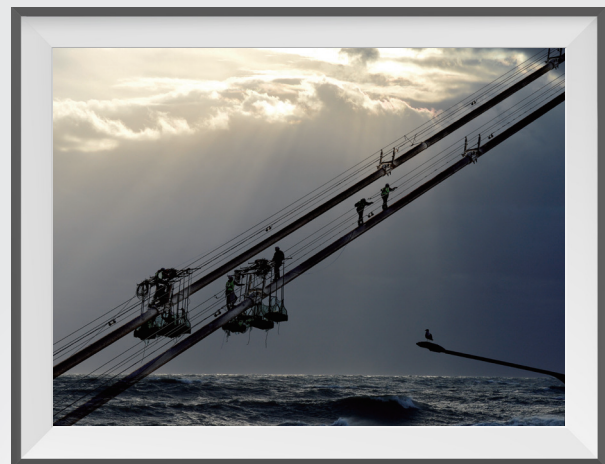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건설근로자 부문

난 힘들지 않아
이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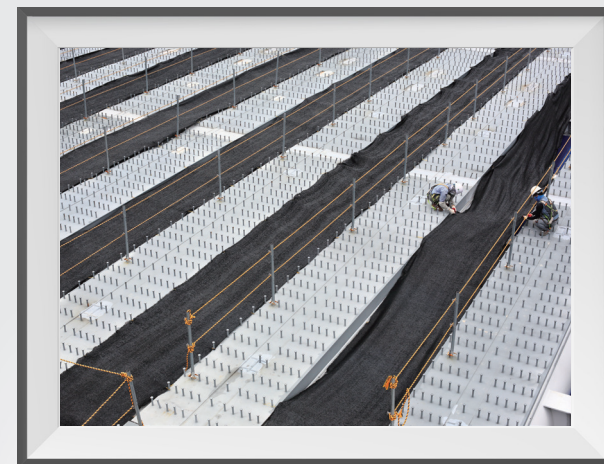
땀이 비처럼 흐르고 고된 작업이 남아 있지만
힘들지 않다는 열정을 표현한 작품



일반 부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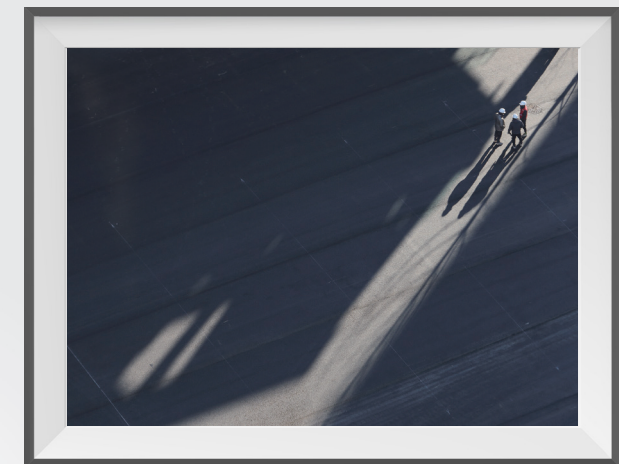
대교 맞출 노후교체 작업하는 근로자의 모습



건설근로자 부문

2인 1조 작업
이정욱

도로 위 교량설치 작업 중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위해 근로자 2명이 2인 1조로 손발을
맞춰가며 작업하는 모습



일반 부문

따뜻한 이야기
임지연

쌀쌀한 겨울, 햇살 따뜻한 곳에서
오늘 작업 내용을 의논하는 근로자의 모습

지난 8월 7일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감동을 담은 총 571점의 공모전 작품 중에서 건설근로자 부문 6점, 일반 부문 9점 등 총 15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사진·영상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서 삶의 공간을 만들며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매년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열정과 땀방울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은 보는 이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준다. 선정된 작품 15점은 QR코드를 인식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제11회
수상작 영상앨범



건설근로자 부문

**그도 화가다
박태신**

어릴 적 꿈꾸던 화가와와는 다르지만
콘크리트 벽을 캔버스 삼아 시멘트 가루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



일반 부문

**즐거운 노동 현장
이동화**

신축공사 현장, 가지런한 치아를 내보이며
함박웃음을 짓는 근로자의 모습



일반 부문

**꿈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나요?(영상)
박종현 외 3인**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두꺼비집을 지으며 놀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 희망의 공간을 짓는 건설근로자가 되고,
두꺼비집을 통해 땀방울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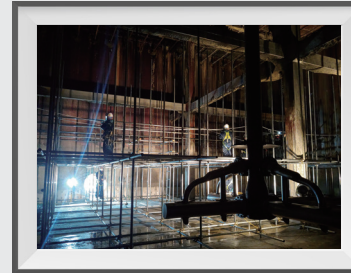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영상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부문

**남산타워와 타워크레인
이성진**

남산타워와 시내를 바라보며
타워크레인으로 물건 양중
준비를 하는 모습



건설근로자 부문

**공사의 시작
김주원**

공사의 시작인 비계틀을
만드는 근로자들 모습



일반 부문

**일터로 가는 길
김택수**

한줄기 소나기가 그친 뒤
일터로 향하는 근로자들의
힘찬 발걸음



일반 부문

**현장에서의 점심 식사
이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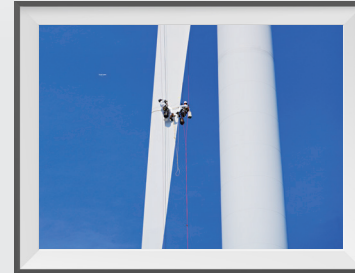
상가 신축 현장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자재 더미를
식탁 삼아 점심 식사하고
있는 모습



건설근로자 부문

**안전을 위한 고위험작업
차준호**

플랜트 파이프랙 철공이
세워진 곳에 케이블 닥트
설치 등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고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일반 부문

**밧줄이 생명인 사람들
오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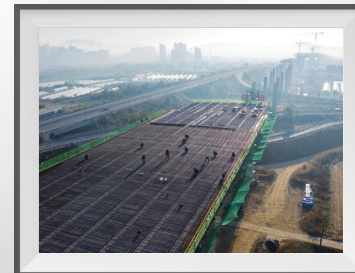
풍력기 프로펠러 수리 작업을
밧줄에 의존하며 고공
작업하는 모습



일반 부문

**콘크리트 작업
고영훈**

아파트 건설 지구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바닥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근로자들이 힘을 모아
작업하는 모습



일반 부문

**도로건설 현장의 아침
이병만**

지상 높이로 뻗어 나가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철근 작업 중인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

고객의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진격의 자산운용본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형, 아들인 건설근로자들.

건설근로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보다 견고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공제부금을 운용,

보다 많은 수익을 돌려주고자 불철주야 뛰는 공제회의 ‘브레인’이 있다.

바로 자산운용본부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자산운용본부는 튼튼하고 안전한 건설근로자의 미래를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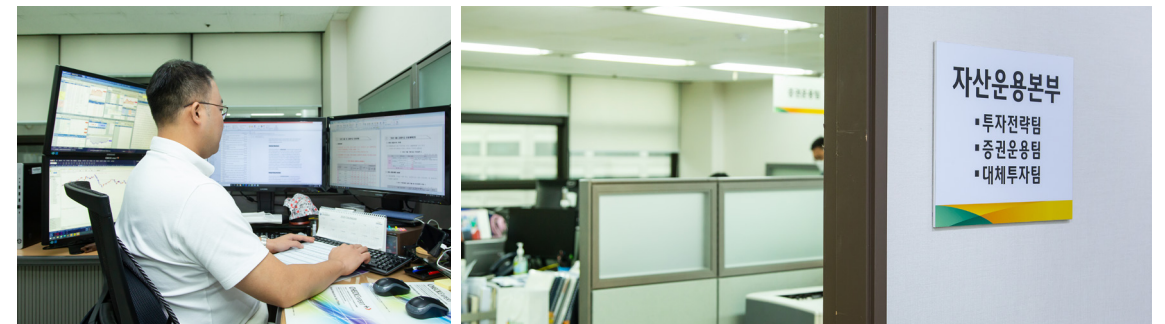
왼쪽부터 박수용 과장, 조경구 과장, 박한솔 과장, 이용준 팀장, 배정현 팀장, 윤성욱 과장, 이위환 본부장



건설근로자 미래 설계의 중심에 있는 공제회의 ‘브레인’

모두가 현재를 바라보고 일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일하는 ‘천리안’팀이 있다. 자산운용본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사업, 고용지원, 고객복지 등의 고객사업 외에 건설근로자들의 공제부금을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증식된 수익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공제회 최고의 고객인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 수익 및 자산 증대를 위해 공제부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자산운용본부다.

“건설근로자분들이 안심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수익을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이위환 본부장은 말한다. 자산운용본부는 투자전략팀과 증권운용팀, 대체투자팀 등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위환 본부장을 비롯해 투자전략팀 2명, 증권운용팀 4명, 대체투자팀 4명 등 총 11명의 구성으로, 비록 인원은 적지만 한 명 한 명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최정에 부대’다. 투자전략팀은 이름 그대로 중장기 자산배분, 주기적인 부금운용계획과 수시전략 수립을 통한 자산운용본부의 투자전략과 자산배분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증권운용팀은 부금운용계획 하에서 국내외 주식채권 편입비 및 포트폴리오



조정, 상품 발굴 등 전통 자산 운용을, 대체투자팀은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기업 투자 내에서의 상품 발굴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대체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증권운용팀과 대체투자팀이 자산운용본부를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이라면 투자전략팀은 이를 조율하는 두뇌인 셈이다.

코로나19 변수에도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

자산운용이 늘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자산운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전략을 포함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대체투자 환경이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운용팀의 이용준 팀장은 메커니즘과 전략이 달라진 만큼 전술도 달라졌다고 말한다. 기존과 달리 투자전략은 변동성

확대 환경에 대응한 자산배분 강화, 증권운용은 저금리 상황에서의 수익 제고, 대체투자는 투자상품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충격이 가장 컸던 2~4월이 이들에겐 '보릿고개'였다. 국내외 증시의 하락과 변동성 확대로 4월까지 수익률 부진이 계속되었다.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높아진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자산운용본부와 리스크관리팀이 위기관리 TF를 구성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장기 전략에 맞는 효율적 전략을 모색한 거죠.” 자산운용본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간의 투자 비중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4월까지만 해도 달성이 요원해 보이던 2020년 목표수익률이 조금씩 실현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확대와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등으로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차츰 회복하기 시작한 금융시장도 수익률 회복에 호재로 작용했다.

자산운용은 근로자 일생의 반백년대계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수익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투자전략팀의 배정현 팀장은 올 초까지만 해도 잿빛이었던 전망이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씩 장밋빛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 목표수익률 달성 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세, 미국 대선, 미·중 갈등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산운용본부는 금융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대응을 통해 목표수익률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 환경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한편 2021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건설근로자분들께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산운용체계효율화를 위한 TF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TF 회의 결과는 자산운용 관련 지침 개정에 반영하게 된다. 개정된 지침 실행을 통해 2021년에는 조금 더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생각이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자산운용본부는 변동성이 큰 요즈음 기회를 삼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자산운용은 반백년대계다. 건설근로자의 노후는 물론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의 자산증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산운용본부의 다짐에서, 그 어떤 방호벽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설근로자의 미래를 읽는다.

코로나19, 조금만 힘내요. 우리!

윤성욱 과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면역력 증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체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가져, 공제회 및 근로자분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박수용 과장

코로나19 재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데 노력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파이팅!!

박한솔 과장

공제회 직원들은 건설근로자분들에 대한 이해를,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및 공제회 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상호 증진해 물리적 거리는 두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더욱 좁힐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품」이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따스하고 유익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조경구 과장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여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늘 가까이에서 응원해주는 「늘품」이 있어 든든합니다. ‘늘품’을 통해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며 위기를 극복하는 ‘각자’, 그리고 ‘서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을 마음껏 이용하세요!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그동안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제회에서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기타 은행 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 대출상품 :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 : 하나은행/보증기관 : 서울보증)
- 대출금 :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5억 원 상한
※ 단,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전 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금리 : 최저 2.456% (2020. 7. 9. 기준)
※ 단, 신용도 및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개별 전세계약 기간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퇴직공제 적립내역서(전체내역) :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발급은 어렵습니다.
-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II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보증, 무담보로 최대 2천만 원까지 하나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II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 중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립일 수 90일(또는 12개월 이내 적립일수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기타 은행 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퇴직공제 적립내역은 은행에서 확인 가능)하여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 대출상품 : 새희망홀씨 대출II(하나은행)
- 대출금 : 최대 2천만 원. 단, 최저금액은 1백만 원
※ 단, 소득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최저 5.687%~최고 10.5%
- 상환방식 :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북은행 JB체인지업론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제2금융권 대환대출 상품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공제 가입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근로자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경우 대환대상 대출기간(6개월 이내), 건수(3건 이내), 금액(2천만 원 이내), 신용등급(1~7등급 이내)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이거나, 연체 중인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기타 은행 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 대출상품 : JB체인지업론(전북은행)
- 대출금 : 최대 2천만 원(단, 최저금액은 4백만 원)
- 대출금리 : 최저 6.55%~최고 12.81%
- 대출금 지급방법 : 은행이 제2금융권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당일 13시 이전 신청시 당일, 13시 이후 신청시 익일 처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스마트폰 앱(전북은행 뉴스마트 banking)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에서 '전북은행 뉴스마트 banking' 검색
- 상품 문의 1588-4477



스마트하고 현장친화적인 전자카드제 를 소개합니다

건설 현장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년. 작년 오랜 노력 끝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전자카드제는 11월 27일부터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탈바꿈하게 될 건설 현장의 미래를 별내선 4공구 건설 현장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자카드제 초보 탈출

별내선 4공구 현장에서는 첫 출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팀장이 전자카드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근로자의 필수품인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담당자의 열정 덕분인지 4공구 현장 8월 근로내역 중 전자카드 신고율은 90%를 넘겼다. 전자카드 태그내역이 빠짐없이 들어와야 근로내역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수월한 만큼 사업주의 교육과 전자카드 발급 독려는 매우 중요하다.

Electronic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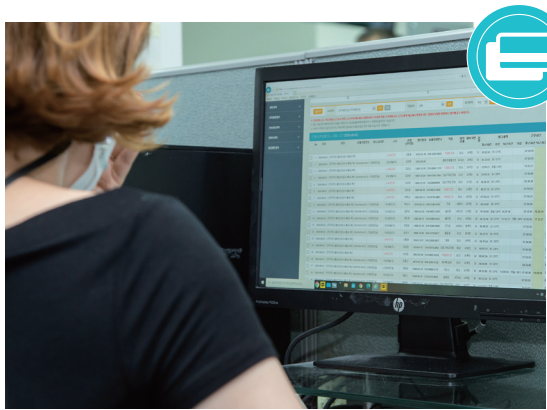
그린라이트 출근 도장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현장. 새벽 6시부터 현장 근로자들은 출근 신고를 위해 현장사무실 입구에 줄을 섰다. 한 명씩 손에 들고 있던 '하나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니 '그린라이트'가 켜지며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전자카드 한 장이면 출퇴근 자동 기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자카드제 도입은 두 가지 변화를 불러왔다. 수기로 근로내역을 입력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근로내역 신고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건설근로자' 본인이 되어 근로내역의 누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린라이트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



진화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별내선 4공구 현장 사무실 입구에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태그 할 수 있도록 벽부형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전자태그, 지문인식,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단말기는 근로내역을 전송해야 하는 만큼 전자카드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현장 특성에 맞게 벽부형, 부스형, 이동형 단말기 중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로나 터널 공사 같은 선형 공사 현장과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에서도 손쉽게 전자카드 태그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에 소형 리더기를 연결하면 단말기 기능이 구현되는 '소형 이동형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관리자는 휴대하기 편하고, 근로자는 그 자리에서 전자카드 태그가 가능해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스마트 단말기'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한 퇴직공제 업무

전자카드 적용 현장을 운영하는 원수급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금을 납부한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태그내역, 즉 근로내역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사업주는 매일매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업주는 더욱 간편하게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원스탑’으로 하는 현장근로관리

아직 과도기인만큼 수기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자카드제 이행 이후 편리해진 점이 더 많습니다. 실제 일별/월별 출력일 수는 물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로자 출역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현장 관리가 편리합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객관적인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정률이 낮더라도 누락 등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아주 투명합니다.

태영건설 손희수 팀장

One Stop System

전자카드가 곧 건설근로자의 이력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편리한 경력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현장 투입인원 등에 대한 정보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 교육훈련 이력,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정보 등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전자카드 한 장이 건설근로자의 이력서가 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필수 아이템 ‘하나로 전자카드’

퇴직공제업무통합시스템이 사업주 중심의 플랫폼이라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 중심의 플랫폼’이다. 근로내역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정보, 기능훈련 이력, 교육 이수 정보 등 다양한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카드에 담긴 이러한 정보들은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즉 전자카드 한 장이 ‘건설근로자의 이력서’가 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필수 아이템이 될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분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가져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잠깐! 전자카드의 금융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발급기관	하나은행(하나카드)	우체국
금융 혜택	생활필수 업종 2만 원 당 200원 그 외 업종 100원 통신료 10만 원 이상 5,000원 CU포인트 2% 적립	병원료, 약국, 통신료 5% 요식업, 편의점, 숙박업 3% 우체국 10% 해외 인출 수수료 면제

INFORMATION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소개

건설근로자가 ‘하나로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직접 태그하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예정금액 공공 100억 원 이상, 민간 30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부터 의무적용되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단말기 태그를 위한 RFID 칩이 내장된 금융형 카드로, 한번 발급받으면 모든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 발급처: 전국 하나은행 및 우체국 영업점
-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 (H-2비자 소지자는 취업인정증 필요)

수해지역 복구 활동 동참 및 성금 1,000만 원 기부



8월 13일, 공제회는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충주시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송인회 이사장, 김지홍 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의 공제회 봉사단원이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충주시 엄정면 가옥의 토사 제거와 물품 정리 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조성한 수해복구 성금 1,0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습니다. 공제회는 사회공헌활동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고객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복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8월 7일, 공제회는 제11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사진·영상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삶의 공간을 만들며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설근로자와 일반 부문으로 나눠 매년 실시 중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약 5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571점의 작품이 접수돼,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난 힘들지 않아(이현중 作)” 등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는 영상 앨범을 통한 온라인 전시회로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8월 6일, 공제회는 건설 산업 일자리·고용개선 및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2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경우 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운영계획과 자문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고용개선, 근로복지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



7월 22일, 공제회는 전국 3만여 개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현장 중 제도를 성실히 이행 중인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사업장은 사업주의 퇴직공제 성실히 이행과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수급사 간 상생협력과 퇴직공제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7개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 중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의 추천을 받은 3개소의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사에서도 관할지역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7월 15일,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올해 3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서, 송인회 이사장은 우리회계법인 고영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송인회 이사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릴레이 주자로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회장,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제회-광장시장 자매결연 협약



7월 6일, 공제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장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식에는 송인회 이사장과 김영재 상인총연합회 회장이 함께 광장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제회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광장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고

청년이 건설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송인회 이사장

지난해 8월 건설노조 청춘버스 청년근로자들과 만났다. 한 청년이 “건설근로자가 결혼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개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소득과 재직 증빙이 어려워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H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조정해 공제회가 발급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증빙 서류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 하나가 이뤄진 것이다.

청년이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이어 정부가 고시한 직종별 시중노임 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건설 현장 혁신 방안들이 속속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2년간 시범사업 결과, 같은 임금을 줄 바에야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누수를 막아 무리한 공기 단축, 장시간 고강도 노동, 잦은 산재,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올해 안으로 사업모델과 적용 범위 등을 정해 제도화하고 전자카드제, 건설기능인등급제 등과 연계해 국내 기능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아울러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적용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를 신설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불법 외국인노동자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청년층이 외면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건설노동시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건설 현장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건설노동자들도 크게 환영할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건설 현장의 숙련인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건설훈련센터 마이스터에 따르면, 분산된 옥외 현장에서 상이한 생산물을 만들어야 하는 건설 현장의 경우 표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무인화가 아니라 숙련인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재·장비·도구를 첨단화해야 한다. 숙련인력이 전제조건이고 첨단화가 필요조건인 셈이다.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체류 기간 문제로 숙련도를 달성하기 어렵고, 중장년층은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기능을 습득할 여유가 없다. 다행히 건설직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건설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진학 응답이 2009년 62%에서 2015년 13%로 감소한 반면, 건설 현장 기능직 취업은 1%에서 27%로 증가했다. 다만, 실제 건설 현장에 취업하거나 정착한 청년층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직업 전망이 보이지 않고 근로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건설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으니 제반 여건들이 갖춰지면 청년들 누구나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해 존경받는 ‘건설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직업학교가 마이스터의 산실이 됐듯이, 건설명장의 산실이 될 건설 마이스터고 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8. 18 헤럴드 경제)

건설근로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원



공제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31일부터 건설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고자 수해복구 지원금을 긴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입은 건설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회-한국관광공사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7월 15일, 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와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여가 지원 및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500여 가족에게 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0만 원 상당의 휴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려든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힐링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양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삶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 본분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용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7월 13일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나,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을 통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로 소득을 증빙하여 2%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전국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



오는 11월 27일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근로자가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 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로써 건설근로자는 건설 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공제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7월 17일, 공제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건설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건설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직업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업 성 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공제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지사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 총력



경기지사는 9월 8일, 하나은행 의정부지점 등 5개 지점과 전자 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북부 관내 35개소 시범 사업장에서 자율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사용률이 코로나19 여파 등 으로 65% 수준에 그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카드 발급을 촉진 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 습니다. 전자카드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지사는 하나은행 의정부지 점을 전자카드 발급 허브기관으로 지정, 건설 현장과의 유기적 인 협조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하나은행 지 점별로 전자카드 담당자를 신규 지정하여 수요에 따라 현장발 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사
부산시와 협업하여 건설행정 설명회 개최



부산지사는 8월 11일, 부산시와 협업하여 건설근로자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해 건설업체 현장관계자(1차), 발주·인허가 담 당자(2차) 등 2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제회는 부산시와 지난 2018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에서 발주하는 30억 이상의 사업장 41개소에 전자카드제를 시 범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전격 시행을 앞둔 전자카드제 도입의 단계적 확대사항과 하반기부터 달라지 는 부산시 건설행정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제부금일액 인상적용(2020년 5월 27일 이후 신규발주 공사 는 6,500원) 및 임금 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현장 인력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퇴직공제 신고 노력을 방 지하고자 도입되는 전자카드제 등 일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법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관계자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광주지사
건설 현장 혁신소통 간담회 개최



광주지사는 7월 30일, 광주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원·하도급 10여 개 사의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혁신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 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제회와 현장소장, 건설근로자가 한자리에 모 여 퇴직공제·고용복지 사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 고 향후 건설업체와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제회가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와 사업 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제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발판삼아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지친 일상에 여유로운 휴식을

코로나19로 올해 여름 휴가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멀리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공제회 휴가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다녀온 건설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주도 펜션에서 추억을

공제회에서 지원해준 휴가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주도 펜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두들 힘내세요.

금영춘

#영덕 리조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었던 쌍둥이들이 매일 심심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참에 공제회 휴가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영덕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제회에 감사드립니다.

김강민

#휴가지원 서비스로 힐링을

공제회에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가족들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매우 아쉬웠지만요. 앞으로로도 휴가지원 사업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김산

#여러분의 가을을 공유해주세요

“독자 마당” 페이지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가을’이나 ‘건설’을 소재로 한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주세요.

- 주제에 맞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고르세요.
- 사진과 짧은 소개 글을 메일 mjcp5@naver.com (10월 31일까지)으로 보내세요.
- 늘품 겨울호 소식지에 실렸는지 확인해보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과 함께 보내주신 사진과 글을 늘품 겨울호에 실어드립니다.

Reader's voice

「늘품」은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평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에 지쳤었는데 여름호 「늘품」에서 리프레싱에 관한 글을 읽고 잘 쉬고 잘 충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박지나

다른 내용의 책자면 대충 보고 버렸을 것을 신랑이 일하는 내용이라 정독하게 되었네요.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날부터 퇴직공제금이 생기게 되었고 쌓여있는 금액을 보며 뿌듯해하는 신랑을 옆에서 보며 퇴직공제금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건설근로자님들 모두 힘내실 수 있게 더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김모란

건설근로자 작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늘품」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건설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하신 예술인 (문인, 화가, 캘리그래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에세이 등 글이나 작품을 소식지에 담고 싶으신 분은 사보 편집 담당(02-519-2018/goamazing@cwma.or.kr)으로 연락주세요. 주변에 알고 계신 분을 적극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늘품 가을호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좋은 점이나 개선할 점 등을 mjcp5@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선정된 분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꼭 발급 받으세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란 무엇인가요?

건설현장의 출퇴근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직접 발급받는 금융형 카드**입니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전자카드'찍고, 사용해서 혜택 받으세요!



전자카드 근무 내역을 통해 **퇴직공제부금을 누락 없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분들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만을 위한 **금융 혜택**(수수료 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우체국

또는



우체국, 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발급 가능!

▶ 전국 지점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지참

※ H-2 비자 소지자는 취업인정증 필요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ttps://ecard.cwma.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